

국제정치학에서 주체 물음: 해석학적 접근을 위한 시론*

도종윤 | 서울대학교

- | 목차
- I. 서론
 - II. 국제정치학의 이론화: 과학적 접근
 - 1. 과학적 이론화의 개념
 - 2. 과학적 연구로서 국제정치학: (신)현실주의와 주체의 소멸
 - III. 새로운 시각을 위한 논거
 - 1. 주체의 복원과 국제정치학
 - 2. 현실 정치 속에서 주체에 대한 물음
 - 3. 단위를 넘어 주체의 재발견: 유럽연합의 정체성을 조망하는 한 가지 입장
 - IV. 국제정치학에서 해석학적 접근
 - 1. 해석의 기초로서 현상학: 하이데거의 사유
 - 2. 국제정치학에서 해석으로의 갈: 단위가 아닌 주체에 대한 물음
 - V. 결론: 단위를 넘어 주체로, 이해를 넘어 통찰로
- | 주제어 (신)현실주의, 주체, 하이데거, 현상학, 해석, 이해, 언어
(Neo) realism, subject, Heidegger, phenomenology, interpretation,
understanding, language

기존의 국제정치학은 (신)현실주의를 중심으로 과학적 이론화에 충실하였다. 실증적인 근거, 체계 중심의 설명 그리고 인과적 관계에 대한 탐구 등은 과학적 이론화의 대표적 지향점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접근은 행위자를 '단위'로 환원시켜 그들 사이의 능력(capability)과 역량(competence)을 몰개성화 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때문에 냉전 이후의 국제정치학의 흐름은 이 같은 접근 방식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식론적 사고를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2차 세계 대전을 전후하여 전체주의와 냉전의 물결이 휩쓴 유럽에서는 '단위'가 아닌 개성 있는 '주체'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이어졌다. '주체'에 대한 관심은 물질주의에 익숙한 체계이론이 접근하지 못하는 내적인 흐름을 포착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컨대 유럽연합의 사례에서 보듯이 답지 능력의 변화는 정체성의 변화를 동반하며 스스로의 자리매김을 재정립하는데 이는 주체를 단위로 환원하는 체계 중심의 이론에서는 간과되는 부분이다. 이 같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NRF-2012S1A3A2033665). 아울러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은 주제 물음은 현상학에 기반한 해석학을 통해 가능하다. 해석은 주체의 능력은 물론이고 은폐된 열망을 드러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같은 드러냄은 국제정치학의 현실에서 포착되는 언어를 이해하여 얇으로 전유할 때 가능하다.

I. 서론

이론의 정교화는 법칙화를 예견한다. 이론가에게 가장 큰 소망은 추상화된 최소한의 변수로 구체적으로 관찰되는 현실을 최대한 엄밀하게(parsimonious and rigorous) 설명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을 객관적 실체로 전제하는 자연과학에서는 이 같은 엄원이 일부 허락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이 도출해낸 결과 중 하나인 $E=mc^2$ 은 이론이 법칙화까지 이르게 된 하나의 예다. 운동 에너지, 빛의 속도, 질량 등 자연현상을 규정하는 몇 가지 개념과 공리를 이용하여, ‘최소한의 변수로 수많은 자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된 것이다. 법칙화는 진리의 보편화다. 법칙화가 가능하다면 그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며, 또한 이론이 완결되지 않고는 법칙화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법칙화를 전제로 이론은 진리의 필요조건이 된다.¹ 그러나 자연과학도 이론의 단순함과 엄밀함을 추구하는 데는 여전히 많은 한계를 드러낸다. 괴델(Gödel)의 증명은 자연과학 법칙의 전제가 되는 공리 체계조차 정합적(consistency)이지 않으며 불완전하다(incompleteness)는 사실을 일깨워준다.² 진리가 존재하지만 증명은

1 Kenneth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McGraw-Hill, 1979), p. 6.

2 괴델의 증명은 “산술학 전체를 포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포괄적인 연산체계의 정합성에 대한 상위 수학적 증명은 이 증명 자체가 그 연산 체계에서 정리를 연역하는데 사용된 변형 규칙과 근본적으로 다른 추리 규칙을 사용하지 않으면 결코 확립될 수 없다”와 “(설령) 정합성을 갖춘 어떤 형식적 수론 체계를 세우더라도 그 체계 속에서 연역될 수 없는 ‘옳은 수론적 진술’이 항상 있다”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는 또한 공리적 연역체계의 부정합성과 불완전성의 극복을 위해 확장된 새로운 공리를 끌어들이는 해도 그 확장된 공리로부터 역시 형식적으로 연역될 수 없는 진리는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어니스트 네이글 · 제임스 뉴먼, 광강제 · 고중석 역, 『괴델의 증명』(서울: 승산, 2011), pp. 96-98.

할 수 없다는 이 같은 결론은 법칙화 된 진리를 지향하는 자연과학마저 ‘공리적 체계’에 의존하는 방법을 넘어 진리를 체계화하는 새로운 발상에 도전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³ 다시 말해 이는 절대적 또는 상대적 진리 같은 세계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성에 기반한 인간의 인식체계로는 자연을 이론화하여 법칙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⁴

국제정치학의 유래를 투키디데스나 마키아벨리, 혹은 홉스의 등장에서 찾는 견해도 있겠으나 국제관계에서 일어나는 제반 사항을 과학적 접근법으로 이론화하려고 했던 전통의 시작이 모겐소(Morgenthau)부터라고 전제하는 것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는 과학적 탐구란 “사회적 현상에 내재하는 힘을 찾아내어 그 힘들이 작용하는 발견하는 것”⁵이라고 정의하고 권력을 중심으로 국제정치학의 과학적 이론화에 시동을 걸었다. 국제정치학의 과학적 이론화는 소위 (신)현실주의(구조적현실주의)를 표방한 왈츠(Waltz)의 등장으로 본격화되었다.⁶ 그는 두 가지 의미에서 과학주의자였다. 첫째는 연역과 귀납의 결합으로 국제정치의 이론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그는 포퍼(Popper) 식의 가설 검증 방식이 과학적 이론화의 완결성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보았다.⁷ 둘째는 개체(단위) 중심이 아닌 구조 중심의 체계적 설명을 통해 단위-단위 뿐 아니라 단위-구조간의 일련의 상호 작용을 수준별로 구분하여 설명하려 했다는 점이다.⁸ 왈츠의 접근법은 구조 중심의 체계에 대한 설명이⁹ 국가로 대표되는 단위 중심의 설명보다 우월한 것으로 가정하였으

3 어니스트 베이글 · 제임스 뉴먼 (2011), pp. 25-28

4 20세기 초반 이후, 자연과학계도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확률론’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베이지안 추론(Bayesian Inference)은 대표적인 경우다.

5 Hans J. Morgenthau and Kenneth Thompson,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6th Edition (New York: Alfred A Knopf, 1985), p. 18.

6 모겐소에서 유래한 고전적 현실주의와 왈츠로부터 발전된 신현실주의를 탈실증주의 관점에서 서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 연구로는 전재성, “한스 모겐소(Hans Morgenthau)의 고전적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 『국제지역연구』 제8권 (2)호 (1999), pp. 57-79 참조.

7 Waltz (1979), p. 11, p. 13.

8 Waltz (1979), pp. 38-59.

9 이 글에서 언급되는 ‘체계’는 윌러스타인 또는 알튀세르 식의 ‘체계’라 아닌 왈츠 식의 표현으로 ‘구조’를 중심으로 상호작용하는 ‘단위’들이 모인 ‘체계’를 의미한다.

며, 단위 간, 또는 단위와 구조 간 벌어지는 상호작용을 인과 관계로 설명하려 했다는 점에서 특징을 띄고 있다. 추론에 기반한 그의 가설 검증 접근 방식의 채택은 실증주의적 사고 속에서 구조를 매개로 한 인과성의 규명 노력으로 요약되며, 결국 이는 고전적 과학주의 전통과 맞닿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소위 자유주의자들이 (신)현실주의 이론에 비판을 가하며 권력개념의 협력적 요소를 강조하며 등장한 것은 행위자를 다변화하고 인과적 변수를 달리한 것이었을 뿐, 근본적으로 (신)현실주의가 가정하고 있는 국제정치학의 과학적 이론화와 실증주의적 접근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들의 노력은 상호 의존 방식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거나 기존의 이론이 가지고 있던 권력개념의 부차적인 요소를 추가하는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¹⁰

이런 가운데 냉전이 해제 된 후, (신)현실주의 이론의 과학적 전제가 가진 문제점을 뛰어넘고자하는 지적활동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의 공통점은 국제정치에서 나타나는 결과물들의 인과 관계와 그들 간의 변수를 찾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제정치에 대한 인식론적 기반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했다는 것이었다.¹¹ 특히 이런 움직임은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 구성주의를 원용하여 유럽통합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유럽인들이 역사 속에서 형성해 낸 간주관주의적(intersubjective) 사고와 사회적 환경이 유럽 통합을 이끌어낸 능력이라고 가정하고 있거나,¹² 유럽통합이 보여준 실재는 현실주의가 가

10 Robert Keohane,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Institutional Theory and the Realist Challenge After the Cold War," in David Baldwin, *Neorealism and Neoliberalism: The Contemporary Debat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11 예컨대, Thomas Risse-Kappen, "Exploring the Nature of the Beast: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Comparative Policy Analysis Meet the European Union" (Manuscript version, 1996); Alexander Wendt,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12 Thomas Christiansen, Erik Jørgensen, and Antje Wiener, "Introduction," in Thomas Christiansen, Erik Jørgensen, and Antje Wiener (eds.), *The Social Construction of Europe* (London: SAGE, 2001), pp. 1-19. 이는 상호간의 이익 형성을 위해 통합이 하나의 거래로 인식한 Moravcsik의 '정부간주의'(Intergovernmentalism)에 반발하는 논리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고. Andrew Moravcsik, "Preferences and Power in the European Community: A Liberal Intergovernmentalist Approach,"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31-4 (1993), pp. 473-524; Andrew Moravcsik, "Taking Preferences Seriously: A

정하고 있는 국제 정치의 속성과는 매우 달랐기 때문에 국제정치에 대한 근본적 가정을 반성하게 만들었다고 본다.¹³ 이들은 갈등 구조를 전제하고 있는 (신)현실주의와는 달리 냉전 기간 동안에도 확대와 심화가 멈추지 않았던 유럽통합의 경험을 거울삼아 그들만의 독자적인 국제정치 세계를 이론화로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예컨대 지역주의(regionalism)와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모색은 유럽의 경험을 중범위 수준의 이론화로 도출해내면서 국제정치학의 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보거나,¹⁴ “노마티브 파워(Normative Power)” 또는 “시빌리언 파워(Civilian Power)”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현실주의 정치학이 비워 두었던 규범과 윤리의 문제를 유럽의 대외정책과 관련하여 설명하고자 시도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¹⁵ 물론 이 같은 노력은 유럽이라는 특수한 사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나 유럽통합을 하나의 과정이 아닌 국제정치의 행위자로 전제하여 구조 속에 매몰된 ‘단위’가 아닌 개성 있는 ‘주체’로 재정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한편, 국내에서도 (신)현실주의를 비판하면서 국제정치이론을 다변화하려는 모색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10여 년간의 작업을 바탕으로 볼 때 이 같은 노력은 크게 둘로 구분된다. 하나는 미국 의존형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반성, 한국적 국제정치이론의 조건 및 필요성에 대한 연구이고,¹⁶ 다른 하나는 기존의 국제정치이론

Liber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sation* 51-4 (Autumn 1997), pp. 513-553; Andrew Moravcsik, *The Choice for Europe: Social Purpose and State Power from Messina to Maastricht*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8).

¹³ Mario Teló, *International Relations: A European Perspective* (Surrey: Ashgate, 2009).

¹⁴ Mario Teló, “Reconsiderations: Three Scenarios,” in Mario Teló (ed.), *European Union and New Regionalism* (Aldershot: Ashgate, 2001).

¹⁵ Ian Manners, “Normative power Europe: a contradiction in terms?”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40-2 (2002), pp. 235-258; Helene Sjursen, “Security and Defence,” in Walter Carlsnaes, Helen Sjursen, and Brian White (eds.), *Contemporary European Foreign Policy* (London: SAGE Publisher, 2004); Mario Teló, *Europe: A Civilian Power?: European Union, Global Governance, World Order* (New York: Palgrave, 2006).

¹⁶ 전재성·박건영, “국제관계이론의 한국적 수용과 대안적 접근,” 『국제정치논총』 제42집 (4호) (2002), pp. 7-26; 민병원, “국제정치이론과 한국: 비판적 성찰과 제안,” 『국제정치논총』 제46집 특별호 (2007), pp. 37-66; 전재성, “한국 국제정치학의 향후 과제들,” 『국제정치논총』 제46집 특별호 (2007), pp. 227-249; 김학노, “국제정치(경제)학의 미국 의존성 문제,” 『국제정치논총』 제48집 (1호) (2008), pp. 7-34; 전재성, 『동아시아국제정치: 역사에서 이론으로』 (서울: EAI, 2011).

이 가진 인식론적 기반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이론에 대한 연구 등이다.¹⁷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들이 주로 유사한 인식론적 기반을 중요한 준거점으로 삼아고 있다는 것이다. 즉, (신)현실주의가 가정하고 있는 무정부적 체계, 권력과 이익 중심의 갈등 구조를 타파하려는 이들의 노력은 대체로 구성주의로 수렴되고 있으며, 또한 그 기저에는 과학적 접근에서 벗어나 차츰 철학적, 사회학적 접근에 보다 더 주목하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점이다. 다만, 유럽 연구자들이 유럽통합이라는 지역적 실체를 일반화로 이끌려는 ‘유럽중심주의(Eurocentrism)’에 빠질 우려가 있듯이, 국내 연구자들도 한국을 국제정치 설명의 핵심적 근거로 삼으려는 지역중심주의적 세계관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보다 더 큰 한계는 이들의 인식론이 기반하고 있는 대안적 국제정치학이 과학적 이론화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과학적인 믿음에서는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¹⁸ 과학적 이론화에 대한 믿음은 현실의 경험을 여전히 인과적 상관관계로 분석하고자 하는 신념과 이를 경험으로 데이터화하여 가정과 실험(사례)이라는 자연과학적 연구프로그램의 틀 안으로 몰아넣으려는 집착으로 이어져 실증주의적 사고를 강화시킨다. 따라서 국제정치 현상을 ‘과학적(scientific)’이 아닌 ‘학술적(scientifique)’으로, 또는 ‘-학(-logy)’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¹⁹ 과학적 이론화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동시에 이론화로부터 기대하는 ‘설명’과 ‘이해’라는 이분법적 사고의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²⁰

17 김상배,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모색: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세 가지 가정을 넘어서,” 『국제정치논총』 제48집 (4)호 (2008), pp. 35-61; 민병원, “이해할 것인가, 설명할 것인가,” 『한국정치연구』 21권 (3)호 (2012), pp. 343-366.

18 구성주의적 사고의 틀 안에 있지만 여전히 ‘과학적 실재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차라리 절충주의적 사고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여전히 과학적 이론화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나톤 모제스·투르본 크누트센, 신옥희 외 역, 『정치학 연구방법론』 (서울: 을유문화사, 2011), pp. 41-50 참조.

19 과학화에 대한 집착은 명칭만으로 판단해도 사회현상을 다루는 다른 어느 학문 분야(Economics, Sociology)보다 미국식 ‘정치학(Political Science)’이 가장 강력한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장기적으로 Political Science가 아닌 Politology로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명칭이 가진 인식론적 기반에 대한 토론은 또 다른 작업을 필요로 한다.

20 예컨대, 민병원 (2012)은 국제정치학이 추구한 이론화의 전통을 ‘설명’의 전통과 ‘이해’의 전통으로 나누고 설명은 실증주의에서, 이해는 베버적 전통에서 조망하였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설명을 과학적 전통으로, 이해를 철학적 전통으로 보는 기존의 관점이 극복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국제정치학의 과학화가 이뤄낸 구조라는 개념 속에 매몰된 '단위(unit)'가 아닌 '주체(subject)'를 복원할 필요가 있으며, 인과 관계에 대한 분석보다는 주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신)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과학적 이론화를 경계한다. 다시 말해, (신)현실주의가 가정하고 있는 구조에 기반한 이론화는 국제정치 행위자를 '단위'로 몰 개성화함으로써 행위자의 존재를 말살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가설과 검증으로 대변되는 과학적 이론화는 실증주의에 밀착됨으로써 주체의 내적 능력, 태도, 그리고 지향성 같은 비행위적 요소는 간과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또한 실증주의는 사태의 분석과 설명의 차원에서 분명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 삶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은유, 환유, 상징 같은 비물질적 요소는 물론이고 논리적 완결성을 통해 앎을 추구하려는 학문적 접근방식은 아예 도태시켜버리는 맹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과학적 설명과 철학적 이해의 이분법을 넘어 먼저 앎을 위한 사유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그 이유는 과학적 앎을 추구할 것인지 철학적 앎을 추구할 것인지가 단지 세계관의 차이, 또는 얻고자 하는 해답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앎(설명)은 철학적 앎(이해)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같은 앎에 도달하는 길은 해석학적 현상학이 중요한 길잡이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 같은 접근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다음 절에서는 먼저 그동안 국제정치학이 취했던 과학적 이론화의 개념과 이를 기반으로 성립된 (신)현실주의의 작업을 살펴본다. 이어서 과학주의, 실증주의, 구조주의의 범람 속에서도 면면히 이어졌던 주체에 기반한 국제정치학의 몇 가지 흐름을 살펴본다. 주체에 대한 이해는 전체론적인 관점의 구조주의와는 분명히 구분되며 그 속성을 파악하고자하는 노력은 전유(appropriate)를 통해 가능하다. 따라서 인과성으로 실증화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기반과는 크게 다르다. 이 같은 전개는 존재 중심의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학'이 국제정치학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과학적 이론화를 넘어서 국제정치 현상을 사유하며 전유한 앎을 외연화 시킬 수 있는 통찰의 길에 대하여 토론한다.

II. 국제정치학의 이론화: 과학적 접근

1. 과학적 이론화의 개념

사회과학에서 이론화의 노력은 과학화를 시도하면서 본격화되었다. 포퍼에 따르면 과학적 의미에서 ‘이론(theory)’이란 논리적으로 자기 일관성을 가진 모델(self-consistent model)이거나 또는 자연 또는 사회적 현상과 관련된 일련의 행태를 그려내기 위한 틀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론’은 대개 사실(facts)로부터 관찰 가능한 경험적 증거에 의해 정당성을 얻는다. 이런 의미에서 ‘이론’은 예측가능하고, 논리적이며, 검증 가능한 이전의 모든 관찰에 의해 확보된 체계적이고 형식화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²¹ 또한 ‘이론’은 단순한 추론의 형식인 ‘연역’ 또는 ‘귀납’과는 구별된다. ‘귀납적 추론’은 개별적 관찰에 불과하여 일반적인 논리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며, ‘연역적 추론’은 단지 논리적 전개상 중요한 전제(premises)만을 다루기 때문에 논리 체계 외적인 경험적 사례를 모두 포함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론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연역과 귀납의 추론 방법이 모두 다뤄져야 한다. 왈츠의 말을 빌자면, “귀납과 연역은 모두 이론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며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거듭나 이들을 혼합하여 이론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된다.²² 그러나 연역과 귀납이 시도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하며, 연구자가 지닌 현상에 대한 물음은 곧 가설(hypotheses)로 구체화된다. 과학적 의미에서 가설은 논리적으로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이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말하자면, “사회과학에서 이론이란 연구 주제의 해답과 관련된 합리적이고 명확한 고찰(speculation)이며 이는 제시된 답변이 왜 맞는지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하므

²¹ Karl Popper, *The Logic of Scientific Discovery* (Unknown: Hutchinson & Co 1959,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reprinted in 2006); Karl Popper, *Conjecture and Refutations* (Routledge & Kegan Paul 1963,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reprinted in 2006).

²² Waltz (1979), p. 11.

로 “이론은 몇 가지의 특정한 기술적이거나 또는 인과적인 전제들을 내포”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²³ 가설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변수(variable)다.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사회과학에서 다루는 변수는 변화가 가능한 그 무엇이며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도 다르다. 과학적 의미에서 변수는 대체로 양적 상징체계로 표시되고 있으며 잠정적인 변화의 무게를 담고 있다. 또한 측정 가능한 요소(factor)로 표시되며 개별적 또는 체계적인 속성으로 귀결된다.

변수의 이런 속성은 자연과학 특히 수학이나 통계학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²⁴ 사회과학에서도 이를 그대로 채용하는 경향이 있다. 변수는 필연적으로 인과 관계(causation)의 측면에서 측정된다는 점은 사회과학에 적용될 때 중요한 특성이 된다. 변수는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와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전자는 연구자의 관찰되는 현상과 연관성을 결정짓기 위해 선택한 임의의 변수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다시 연구자가 독립변수의 가치가 종속변수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그리고 이런 변수는 독립, 종속 여부와 상관없이 대체로 관찰 가능하고 측정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인과적 모델(causal model)에서, 종속변수는 독립변수의 변화에 조응하여 그 가치가 다양하게 결정된다. 즉,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며 반대로 종속변수는 독립변수로부터 파생된 ‘잠재적 결과’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인과적 모델은 귀납적 추론을 예비한 연역적 추론방법에 기반하고 있다. 과학적 연구에서 연구자가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종속변수가 왜 그 같은 결과물 - 특히 양적인 의미에서 - 을 산출하게 되었는가에 있으며 이를 독립변수와의 관계로 귀결시켜 일반화하는 것이 이론구축의 일차적인 목표가 된다. 연구 주제와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가설을 설정하는

²³ Gary King, Robert Keohane, and Sidney Verba, *Designing Social Inqui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p. 19.

²⁴ Alpha Chiang, *Fundamental Methods of Mathematical Economics*, 3rd ed. (New York: McGraw-Hill, 1984); David Freedman et al., *Statistics*, 2nd ed. (New York: W.W. Norton & Company, 1991).

데서부터 이론화는 시작된다. 그리고 각종 변수들로 가설을 명제화 시킨 후 이들 간의 상관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경험적 증거를 통한 실험으로 검증 과정을 거친다. 바로 이 과정에서 실증주의적 접근이 접목된다. 검증에 실패한 이론은 폐기되어야 할지 설명의 영역을 재설정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가설을 세워서 다시 검증해야 할지 연구자의 판단에 따른다. 이렇게 도출된 이론은 보편적 실재의 종합보다 더욱 광범위할 뿐 아니라 특수한 현상의 종합이나 한 가지 원칙의 특수한 적용 이상의 것이 된다. 이처럼 검증을 통과한 이론은 ‘설명력(explanatory power)’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인과적 관계에 의존한 설명을 통해 보편적 법칙(universal law)으로 거듭나게 된다.²⁵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이론의 법칙화가 반드시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예컨대, 국제정치학에서 다루는 사실(facts) 관계는 단순화된 경우가 많아 현실(reality)의 복잡성과는 매우 다르다. 따라서 이론은 ‘객관화된’ 현실 세계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현실에 대한 예측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론은 변수들의 집합은 아니므로 어떤 거대 이론도 모든 변수들을 빠짐없이 포함하고 있을 수는 없다. 따라서 예측이 반드시 이론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²⁶ 다만, 이론은 일정한 조건이 전제된 상황에서만 유효한 일시적인 설명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력’과 ‘예언(prophesy)’은 구분되어야 한다.²⁷ 이것은 사이비 과학과 과학을 구분하는 길이기도 하다.

2. 과학적 연구로서 국제정치학: (신)현실주의와 주체의 소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정치학을 포함한 사회과학의 가장 큰 변화는 과학적 성격을 띠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과학적 접근 또는 합리적 선택을 선호하는 정치

²⁵ Popper (1959), p. 38.

²⁶ Waltz (1996), pp. 56-57.

²⁷ Popper (1963), p. 458; Imre Lakatos, *Proofs and Refutations: The Logic of Mathematical Discovery*, John Worrall and Elie Zahar (ed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pp. 29-30.

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이전의 정치학은 단지 입법과 제도에 관한 역사 연구의 일부였을 뿐이며 정치사에 관한 서사(storytelling)에 불과했다.²⁸ 국제정치학도 예외는 아니어서 종전(終戰) 이전의 국제정치학은 국제관계에서 일어나는 제반 역사나 국제법의 범주로 파악되곤 하였다. 한 가지 눈여겨 볼 것은 국제정치학은 정치학과는 달리 이론화에 대한 시도조차 어려운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점이다. 와이트(Wight)는 국제정치 이론과 정치이론을 구분하면서, 정치학은 인간의 보다 나은 삶(good life)에 관심을 가짐으로 해서 이론화를 위한 풍부한 철학적 기반을 갖고 있는 반면, 국제정치는 오로지 국가의 생존에만 관심을 가짐으로 해서 순환(recurrence)과 반복(repetition)의 범주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제정치학은 이론의 발전에 부적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²⁹ 이런 맥락에서 모겐소의 가장 큰 공적은 국제정치가 외교나 국제법 등과는 다르다는 가정 하에 국제정치학만의 개념들을 고안하여 이들을 논리적으로 엮어 냄으로서 이론화를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모겐소 이후의 국제정치 이론이 과학적 성격을 띠고 있는가? 과학적 이론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먼저 모겐소 이후의 국제정치 이론의 존재론적 기반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부터 찾고, 앞 절에서 살펴본 틀 안에서 과학적 이론화를 추구하였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모든 이론은 일종의 존재론적 기반(ontological foundation)이 있으며 이는 국제정치이론에도 똑 같이 적용된다. 즉, “정치적 행위자가 어떻게 정치적 세계를 구성하며 또한 자신의 목적을 어떻게 상상해 내는가?”에 대한 물음이 그것이다.³⁰ 버칠(Burchill)에 따르면 “국제정치 이론은 국제관계에서 발생하는 중요 문제들에 대하여 학술적인 의미의 질서를 부여하고 과거에 발생한 사건과 현재의 사건 모두를 개념화 및 맥락화 시키며 이는 또한 우리에게 복잡한 이슈들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을

²⁸ K. Shepsle and Mark Bonchek, *Analyzing Politics* (London & New York: Norton, 1997).

²⁹ Martin Wight, “Why is there No International Theory,” *International Relations* 2 (April 1960), pp. 35-48.

³⁰ J. Macmillan and A. Linklater, *Boundaries in Question: New directions in International Relations* (Unknown: Pinter Pub Ltd., 1995), p. 10.

제시해준다”고 하였다.³¹ 또한 연구자들은 이론을 통하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낯선 현상에 대하여 대응하여 자신의 마음을 훈련시키고 길잡이를 찾게 되며, 더 나아가서 이론은 연구자들이 비판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일관성을 갖고 사유하도록 해준다. 모겐소는 “이론은 어떤 선입견으로 추상화된 원리나 현실과는 괴리된 개념에 의해서 판단되어서는 안 되며 그 목적은 현상의 덩어리에 의미와 질서를 부여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것이 서로가 별다른 연관도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³² 이런 의미에서 이론은 이성(reason)의 힘을 거쳐 사실을 규명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현실주의 영역에서는 사실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며 그렇게 하여 도출된 원리들(principles)은 인과적 추론의 과정과 논리성에 따라서 실제에 대한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소위 포퍼 식의 이론화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모겐소의 도전 목표는 국제정치학의 과학화였다. 그는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적 현상 속에 내재하는 힘들의 작용 양식을 발견해 내려고 하였다.³³ 이런 맥락에서 그에게 국제정치학은 국가들 간의 정치적 관계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작용 양식은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결국 그에게 국제정치학의 과학화는 힘을 변수로 국제관계속에서 드러나는 현상 간에 일정한 변수를 설정하여 인과 관계의 규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모겐소는 국제무대에서 국가의 힘은 국력으로 표현되며 그러한 국력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보았다. 그는 국력의 요소로 지리적 요소, 자연자원, 공업능력, 군비, 인구, 국민성, 국민의 사기, 외교의 질, 정부의 질 등 아홉 가지를 국력을 평가하는 독립변수로 보았고 국제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국가들의 양상을 종속변수로 보았다.³⁴ 이 같이 변수를 차용한 인과적 접근은 그 이전의 서사(敍事), 제도, 인물 중심의 국

31 Scott Burchill, "Introduction," in Scott Burchill et al. (eds.),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2nd ed. (New York: Palgrave, 1996), p. 13.

32 Morgenthau and Thompson (1985), p. 3.

33 Morgenthau and Thompson (1985), p. 18.

34 Morgenthau and Thompson (1985), pp. 115-304.

제정치학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었다.

한편, 왈츠는 모겐소 식의 과학화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론이 법칙을 설명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는 모겐소를 이어받아 인과적 추론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이론의 정교화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이론'이란 눈에 보이는 사건 또는 기록된 조합들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설명이며, 상호간에 의존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현상을 배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또 필요한 경우 현상이 다른 현상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보았다.³⁵ 그러면서도 왈츠는 자신의 연구 태도와는 상관없이 '과학적 방법(method of science)'이라는 용어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우선 구조와 부분(단위)을 구분하였다. 그가 비판하고자 했던 '과학'은 고전 물리학이 원용했던 부분 중심의 환원적 접근이었다. 그에게 환원적 접근은 '분석적 접근(analytic method)'이며 '체계적 접근'과는 대비되는 것으로 보았다. 다만 분석적 접근 방법의 유용성은 체계적 접근의 결과가 부재하거나 미약할 때만 의미 있는 것으로 보아 체계적 접근의 우위를 인정하였다. 더 나아가 변수들 간의 속성, 상호작용에 더하여 체계의 조직 방식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³⁶ 그러나 '개체 분석'이 과학주의적이라면, 구조 중심의 체계적 접근은 어떤 인식론에 근거하고 있는가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는 확실히 체계의 구조와 상호작용하는 단위들 간의 영향이 인과적으로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그의 체계적 접근(구조주의)의 논리가 지향하는 것은 이론화를 통한 법칙화의 정립이었으며, 그의 인식론이 추구하는 내적 논리는 변수 간 인과성에, 외적 형식은 추론에 의한 가설의 검증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가 비판하고자 한 것은 '과학적 분석'이 아닌 '체계 환원'이었을 뿐이며, 그의 관심은 여전히 체계와 단위 간에 작용하는 변수들 간에 작용하는 인과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었다.³⁷ 다만, 왈츠가 체계(또는 구조)를 관심의

³⁵ Waltz (1979), pp. 1-10.

³⁶ Waltz (1979), pp. 39-41.

³⁷ Waltz (1979), pp. 123-128.

중심축으로 보았던 까닭은 국제정치학이 범주화된 경계를 가져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즉 ‘국가’라는 행위자에 대한 천착은 국제정치학의 범주와는 구분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전체에 대한 조망 속에 국가라는 속성이 의미가 있을 뿐 개체 그 자체는 전체 속에서는 ‘단위’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국제정치학은 그러한 틀 안에서 법칙과 같은 수준의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관찰 가능한 규칙성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을 발전시킬 수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론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학문적인 가정(theoretical assumption)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자들은 관찰되는 것이 사실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는 안 되며 그것이 유용한 것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하고, 이론은 그것이 설명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견지에서 판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이론이란 일반적인 설명 체계로 어떤 특수한 것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엽적인 것을 모두 담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³⁸

모겐소와 왈츠의 논의를 중심으로 볼 때, (신)현실주의는 인과적 접근의 시각에서 가정(Hypothesis)과 변수(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현상의 덩어리에 의미를 부여하여 질서를 추출해 내는 작업을 이론화라고 보았다. 이런 과정을 거칠 경우, 이론화의 공통적 기반은 개별 수준이 아닌 일반적인 수준에서 정치적 행위자가 어떻게 정치적 세계를 이끌어 가는 지에 대한 설명력을 높여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실증적 경험으로 대표되는 과학적 엄밀함으로 가능하다는 전제를 포함하고 있다.

³⁸ Waltz (1979), pp. 116–120.

Ⅲ. 새로운 시각을 위한 논거

1. 주체의 복원과 국제정치학

후설이 현대인의 위기를 진단하면서 내린 잠정적인 결론은 “현대 과학이 병들어서 그 본래적인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위기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³⁹ 과학이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준 것은 분명하지만,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세계를 다루는 물리학은 물론이고 역사학, 문헌학 등 정신과학이 이바지해야 할 분야마저 가설 검증 방식에 기반 한 소위 ‘실증주의(positivism)’ 철학으로의 수렴은 경계할 일이었다. 과학으로의 수렴이 갖는 문제점은 각 분야별로 존재하거나 또는 각 의식구조에서 서로 구별되는 다양한 사태영역이 있음을 잊고 어느 특정한 사태 영역으로만 존재나 인식원리를 일반화시켜 모든 인식의 기반을 일원화 해 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이었다.⁴⁰ 앞서 살폈듯이 국제정치학도 (신)현실주의 등장 후 과학화 작업이 예외는 아니어서 각종 변수들을 귀납적으로 포착하여 논리적으로 연역한 후 체계화 시키지 않는 접근은 무용한 것으로 치부하곤 하였다. 더구나 구조를 중심으로 조망하는 세계관은 행위자(또는 주체)를 속성이 비슷한 ‘단위’로 환원시켜 버리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설이 우려했던 일의적(一義的) 사고가 근대 유럽의 전반을 모두 지배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미약하나마 변증법적 사고가 흐르면서 이에 기반한 ‘주체’에 대한 물음이 여전히 유효하였다. 신의 죽음 이후 ‘주체’에 대한 관심은 근대 유럽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였다. 데카르트(Descartes)가 인간 존재를 반성적 주체로 봄으로써 주체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이래, 계몽주의 시대 이후 철학의 과제는 자기비판의 과정이었다. 특히 니체(Nietzsche)에게 드러난 주체의 확실성은 기존의 고정적 불변적 주체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self-instituted) 주체를 탄생시켰고, 이 같은 진리를 위한 작업은 후속 세대를 끊

39 이남인, 『현상학과 해석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4), p. 22에서 재인용

40 이남인 (2004), pp. 24-25.

임없이 자극하였다.⁴¹ 이들은 확실성의 기반으로 인간 존재를 확고히 세우는 길은 세계 내의 다른 대상(객체)들과 주체로서의 관계를 끊임없이 반복함으로써 밝혀진다고 보았다. 주체는 이성으로, 세계는 변화하지 않는 존재로 파악했던 이전의 철학에서는, 주체는 세계를 이성의 거울에 비친 고정된 상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이제 주체와 세계의 상호작용 속에서 양자는 동시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⁴² 이러한 맥락의 주체는 '나'이며 전승된 이성, 반성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의 주인임을 의미하며 또한 세계와의 관계를 맺는 주인이다. 주체로서 인간이 세계 및 다른 실체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주체 재현(representation)의 한 가지 형태이며 또한 (인간) 존재를 세상으로 환원시킴으로써 주체는 객체가 되어 나타난다. 곧, 주체는 객체가 되는 것이다.⁴³

이 같은 주체의 개념은 인간에 대한 철학적 물음 뿐 아니라, 국제정치학에서도 드러난다. 근대 국제정치학이 원용하고 있는 홉즈식 가정의 핵심은 세상의 위험성을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홉즈는 인간의 이기심과 생존 욕구는 자기 유도된 주체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삶의 방식이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구체화 된다. 반면, 로크와 같은 합리주의자들은 재산권 의식을 가진 근대적 주체가 사회를 일종의 '몸(body)'으로 인식하고 독립적인 개인들이 자발적인 합의에 의하여 몸(사회)를 구성한다고 여겼다.⁴⁴ 즉, 존재로서의 주체는 홉즈 이후 이미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자리매김을 한 것이다. 이후 국제정치학의 관점에서 근대적 주체의 존재론적 중심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첫째는 세속적, 이기적, 목적의식을 가진 정치적 대리인(국왕, 권력자)의 등장이었으며, 둘째는 국제정치의 집합적 실체로서 의인화된 국가였으며, 마지막으로 개인들

41 몇 가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니체의 '권력의지' 개념은 하이데거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주체'로 해석한 대표적 업적이다.

42 이 같은 논의는 하용삼·김준수, "니체, 철학의 해체와 재구성," 『대동철학』 48권 (2009) 참조.

43 Louiza Odysseos, "Deconstructing the modern subject," in Cerwyn Moore and Chris Farrands (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Philosophy* (Abingdon & New York: Routledge, 2010), p. 21.

44 John McCumber, *Metaphysics and Oppression: Heidegger's Challenge to Western Philosophy* (Unknow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9), p. 155.

은 무정부 상태로 주어진 현실에서 합리적 선택을 취하는 주체였다.⁴⁵ 다만,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양측은 개인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다소 간의 구분이 있었는데 이를테면 인간의 합리성에는 동의하였으나 그 본질이 다르다는 것에는 차이점을 보였다는 점이다.

구성주의는 ‘주체의 복원’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분명한 의의를 가진다. 곧 ‘국가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실체’로 보되, 이때 국가는 주체 또는 자아와 동등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구조와 대리인의 관계를 종합화하려는 시도가 구성주의 사고의 중심이었다. 국가는 진정한 대리인으로서 자아(self)와 목적의식을 가진 주체적인 대리인(purposive actor)이라는 점으로 이해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구성주의 사고에서는 주체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복원된 것으로 보인다. 웬트(Wendt)는 바로 이런 주체적인 대리인이 국제 체제의 본질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말하자면, 그의 전제는 지향성을 지닌 국가, 대리권을 행사하는 국가로 전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주체가 지닌 자율성을 복원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⁴⁶

2. 현실 정치 속에서 주체에 대한 물음

주체에 대한 관심은 현대 국제정치와 관련하여 몇 가지 새로운 질문을 던져준다. 즉, 국제정치학의 맥락에서 “주체의 현실화는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이 물음은 (신)현실주의가 지향하는 인과성 중심의 이론화 작업에서는 간과하는 부분이다. 주체에 대한 물음은 특히 유럽에서 반성적 울림으로 퍼져나갔다. 두 가지 경험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는데, 하나는 독일에서 시작되어 유럽을 혼돈 속으로 몰아넣었던 전체주의였고, 다른 하나는 냉전시대에 등장한 구소련으로부터 파생된 체험으로, 주체의 성찰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정치적 체험은

⁴⁵ Odysseos (2010), p. 23.

⁴⁶ Odysseos (2010), p. 24.

단지 국내의 정치 체제적 문제만이 아닌 인간 주체가 사회 속에서 겪게 되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연대, 더 나아가 국경을 넘어 국제적 연대에 대한 조응과 불협화음에 대한 성찰로 인도된다. 근원적으로 보면, 유럽의 주체에 대한 관심은 그 동안 유럽인들이 유산으로 보존해왔던 플라톤주의의 계승과 연관되어 있다. 존재에 내재해 있다고 보는 영혼(soul)에 대한 관심은 정신활동의 차원이 아니라 진리를 찾고자 하는 자아와 관련된 활동과 연계되었던 것이다. 20세기 내내 동유럽이 구 소련 주도 하의 공산지배 체제에서 겪었던 체험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파토치카(Patočka)는 이 같은 동유럽의 정치적 체험을 토대로 현상학과 삶의 세계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으며 어떻게 인간(주체)를 구분 짓게 해주는가, 또한 삶의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생산되고 각인되는지를 묻는다.⁴⁷ 말하자면, 주체의 등장은 윤리학과 정치학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조망하는 자아의 탄생을 수반한다. 파토치카는 동유럽에서 구소련과의 갈등 속에서 벌어진 정치적 위기(체크 위기, 헝가리 위기)는 ‘흔들리는 과정(process of shaking)’으로써, 사태의 전환 또는 대화의 시작 등을 통해 새로운 주체의 통찰력이 거듭나게 해주는 길을 열어 주었다고 본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 의한 자유획득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 프라하의 봄 실패 -는 이상적 힘과 물리적 힘 사이에서 고민하는 자아를 되돌아보게 된다. 그리고 인류를 지배하는 확실성에 대한 순진한 의식은 동요하게 되고 이는 철학과 정치학을 순회하며 보다 심오한 통일성을 가져오게 한다. 따라서 동요와 파열의 만남은 인간 앞에 드러나게 될 윤리에 대한 정치적 또는 철학적 재현이 놓이게 될 조건이 되는 셈이다.⁴⁸ 그리고 자아를 성찰한 주체는 자유를 향해 투쟁하며 갈등 속에서도 단결의 정신을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 영혼에서 출발한 유럽의 유산은 소크라테스 및 플라톤으로부터 유래한 ‘근심(care)’에 대한 재고찰과 다름 아니다. 비록 서유럽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근심’은 문화적, 역사적 실체로서 유럽 가치의 기본이 된다. 구소련의 압

47 Cerwyn Moore, "Jan Patočka and global politics," in Cerwyn Moore and Chris Farrands (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Philosophy*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10), pp. 52-53.

48 Moore (2010), pp. 50-51.

박 속에서도 동유럽에서는 ‘근심’에서 출발하여 용기, 공감(empathy), 연민(compassion)등으로 전이되며 시민적 책임에 관한 에토스로서 대중들에게 넓게 작용하게 되었다.⁴⁹ 또한 근심의 정치학은 정치 대리인들에게 권력에 대한 성찰을 가져오게 된다. 즉, 미학적 변용을 거쳐, 벽화, 그래피티(graffiti), 음악, 시 등 정부의 지배적인 방식에 저항하는 형태로 연결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곧 전체주의에 대한 반대로 귀결되며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평등, 법치주의 등의 전통의 근거가 된다.⁵⁰ 그리고 이는 곧 주체 물음의 재현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주체의 근원에 대한 물음은 곧 폭력에 대한 대응과 그 결과물인 윤리의식으로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렇다면 레비나스(Levinas)가 던진 질문처럼 타자에 대한 폭력을 다룰 때 윤리의 문제가 가능한 경우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인가?⁵¹ 먼저 자아란 자기 보존성을 지님과 동시에 타자를 향한 정향성을 지닌 존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기 폐쇄적인 이기적 자아로부터 타자를 열망하면서 초월해 가는 자아의 운동, 상대를 마주보는 윤리적 관계의 형성이 윤리학의 중요 문제로 드러난다. 말하자면, 타자와 마주봄으로써 타자를 일깨우고 타자에 대한 책임감(responsibility)으로부터 주체성이 등장한다는 것이다.⁵² 타자에게 반응한다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타자의 권리 있음에 반응하는 것이며 타자와의 대면을 통해 그에 대한 윤리적 욕구가 생기게 된다. 타자와의 대면은 내적 책임성을 일깨우고 주체성에 대한 성찰이 고양된다는 것이다. 즉, 책임감은 주체의 의미를 재형상화하는 매개가 된다. 도덕이나 윤리는 정치학이나 사회학의 외부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인간은 이미 윤리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레비나스가 말하는 책임감은 국제정치학에서 언급하는 규범주의 이론(normative theory)의 그것과는

49 Jan Patočka, “The Obligation to Resist Injustice,” in E. Kohák (ed.), *Jan Patočka: Philosophy and Selected Writing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9).

50 Moore (2010), pp. 52-59.

51 주체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탄생한다고 전제할 경우, 타자에 대한 폭력은 오히려 나(주체)를 성찰하는 근거가 된다.

52 Emmanuel Levinas, *In the Time of the Nations* (London: Athlone Press, 1994).

다르다.⁵³ 그 이유는 주체성이 보다 강조되기 때문이다. 이 책임감은 어떤 결정의 근원이 아니며 규율이나 명령의 집합체에 의해 만들어지지도 않으며 단지 타자에 대한 주체성의 근원일 뿐이다. 다만, 문제는 캠벨(Campbell)이 지적하였듯이 레비나스가 말하는 자아-타자와의 관계는 국가 또는 사회라는 주어진 체제 안에서 가능한 것이지, 사회-사회, 국가-국가 등의 체제와 체제 사이의 관계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⁵⁴

주체에 대한 본질적 사유가 반드시 민족, 국가, 또는 인종 동질성에 기인하여 원초적 근원을 찾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19세기 유럽의 제국주의 팽창은 전체주의에 기원하고 있고 냉전시대의 이데올로기적, 군사적 팽창 역시 제국주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주체에 대한 반성을 요구한다.⁵⁵ 즉, 이념의 획일화와 그것이 물려온 파괴는 오히려 주체의 본질적 사유를 왜곡시키기며 ‘주체 물음’ 하기도 한다. 20세기 초까지 유행했던 범유럽주의(이른테면, 범독일주의, 범슬라브주의)는 기존의 정치질서를 뿌리 뽑고 국경, 심지어 정치적 정체성마저 말살하는 등 주체 물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다.⁵⁶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든 폭력이든 어떤 식의 코스모폴리탄 실존이든 주체에 대한 사유를 왜곡시킬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아렌트(Arendt)는 비폭력적, 비제국적, 비이데올로기 정치적 기초를 세워야 제국주의적이지 않은 탈민족(post-national) 형태의 정치가 세계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끊임없는 정초작업(constant founding and re-founding)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실현가능성과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⁵⁷ 다만, 그에게 이것은 주체가 정치적으로 결

53 Andrea Den Boer, “Emmanuel Levinas, ethics and rupturing the political,” in Cerwyn Moore and Chris Farrands (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Philosophy*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10), pp. 60-71.

54 David Campbell, *Politics without principle* (Boulder: Lynne Rienner, 1993) 또한 Den Boer (2010)도 참조.

55 Hanna Arendt,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New York: Harcourt Brace, 1966).

56 그런 면에서, 1945년 이후의 유럽의 유럽인이라는 동질적인 정체성에 기반하여 정치적, 경제적 통합을 진행해 나가는 것은 위험한 발상으로 보았다.

57 Annabel Herzog, “Political Itineraries and Anarchic Cosmopolitanism in the Thought of Hanna Arendt,” *Inquiry* 47-1 (2004), pp. 20-41.

합하는 조건인 것이었다. 아렌트가 보기에 정치적 보편주의와 제국의 팽창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 이유는, 비록 두 가지가 서로 극단에 놓여있으면서 반대감정의 병존을 보이고 있지만, 그들이 서로 함께하는 지향성은 주체에 대한 말살이기 때문이다. 결국 아렌트 식으로 보자면 인간이 가진 가치(인간성), 곧 주체가 가진 가치에 비중을 둔 접근이 반성적 접근의 핵심인 것이다.⁵⁸ 그렇다면 궁극의 조건은 무엇인가? 적어도 국제정치학에서 아렌트의 궁극의 이미지는 세계연방의 구조(a worldwide federated structure)로 요약된다. 이 속에서 정치적 주체는 억압과 규제로부터 탈피해야 하는 존재로 규정된다. 아렌트에게 ‘정치’는 폭력을 통해 다른 이를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반대로 자유롭게 나타나 다른 이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서구 사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물을 예정하고 있다. 즉, 정치적 자유의 확보는 곧 비 지배, 비 규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배를 원하면 그 대상이 누구든 어떤 억압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전제에서 나온 결론이다. 자유로운 발언과 자유로운 행동의 확보를 통해 인간은 ‘그들 사이의 공간을 형성(space in-between)’ 하게 되고 이를 통해 곧 공공의 영역(public realm)이 등장하게 된다. 공공의 영역은 사람들이 속해 있는 각각의 집단들을 다양화 해준다. 법의 제도화를 강화하여 정치적 발언이나 행위의 안정성을 꾀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식이든 세계시민의 형성이 제도를 통해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세계시민적 정의와 자기 결정권은 영원히 풀 수 없는 모순이므로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인간 주체이다.⁵⁹ 결국 아렌트의 코스모폴리탄 세계는 기존의 어떤 이익, 아이디어에도 기대지 않는 정초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주체를 단위로 환원시키는 구조에 대한 매몰은 물론이고 이념성을 띤 자유주의마저 주체가 성찰하는 과정에서 의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아렌트에

58 Patricia Owens, “Walking corpses: Arendt on the limits and possibilities of cosmopolitan politics,” in Cerwyn Moore and Chris Farrands (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Philosophy*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10), pp. 72–83.

59 Arendt (1966); Hanna Arendt, *The Promise of Politics*, Jerome Kohn (ed.) (New York: Schocken, 2005).

게 정당한 질서란,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이어야 하며 공화적 사회 간(inter-republic) 또는 정책 결사체 간의 권위체(inter-polity authority)를 통해 국제적 권위(international authority)를 정초해야 한다.⁶⁰

신학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세계관이 근대적 주체의 등장으로 인간 사유에 큰 충격을 가하면서 국제정치학을 대하는 연구자들의 인식론도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즉, 주체적 인간의 등장은 곧 구조 속의 획일화된 개체가 아닌 국제정치학의 주된 존재(행위자)에 대한 물음으로 전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체로서 국제정치학을 안다는 것은 곧 언어, 사회적 관습, 사회적 의미가 서로 만나 조정하는 이종문화간(inter-culture)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와 같다.⁶¹ 그 안에는 서로 다른 가치와 서로 다른 지식이 공존하므로 이를 앎으로 전유(appropriate)하는 것은 지식인의 과제일 수밖에 없다.⁶²

3. 단위를 넘어 주체의 재발견:

유럽연합의 정체성을 조망하는 한 가지 입장

냉전의 종식 이후, 특히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유럽에서는 미국 중심의 국제정치학을 벗어나 보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다 있다. 이들은 주로 웬트류의 구성주의 접근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체의 개별성을 보다 심도 있게 논구하되 그 내적 변화의 동인을 탐구하는데 몰두하였다. 이 같은 움직임은 유럽연합

⁶⁰ Owens (2010), pp. 81-82.

⁶¹ Chris Farrands, "Gadamer's enduring influen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Cerwyn Moore and Chris Farrands (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Philosophy*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10), pp. 33-34.

⁶² 국제정치의 주체로서 '국가론'을 전개한 맑스주의적 전통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Poulantzas, Jessop, Laclau, Mouffe 등으로 이어진 국가론 전통과 경제적 관점에서 국가의 기능을 다룬 Aglietta, Boyer 등의 조절이론(Regulation Theory)은 주체에 관한 탐구로서 중요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으며 계속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영역들이다. 한편, 식민지의 경험을 겪은 주체들에 대한 연구는 이미 제3세계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예컨대, Fanon, Bhabha, Spivak, Cesaire, Achebe 등의 작업). 다만, 후자의 경우 국제정치적 지평이 아닌 인류학적 지평에서 다루고 있다. 위에 언급된 세 분야는 향후 또 다른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 경제 공동체를 넘어 국제정치에서 독창적인 행위자로 등장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때문에 유럽연합이 단순히 ‘의제화된 국가(a would-be state)’ 라거나 정책 결정을 위한 ‘제도(institution)’ 또는 ‘기구(organization)’ 가 아닌 독특한 정체성을 지닌 제3의 행위자라는 주장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⁶³ 이 같은 움직임은 사실 물리적 힘과 구조를 국제정치의 본질로 인식한 냉전적 사고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였지만, 유럽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면서 주체 물음이 시작된 것이다. 2000년 대 초에 이미 유럽연합의 탄생을, ‘정치 시스템’ 과 ‘국제기구’ 사이의 ‘혼성체(a hybrid form)’ 라고 보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고,⁶⁴ 이후 유럽 연구자들은 국가중심모델을 넘어서 국가와 구분되면서도 집단적 정체성을 가진 ‘무엇’ 인가로 개념화하기 고민하고 있다.⁶⁵

유럽연합을 반성적 주체로 정체성을 규명하려는 노력 중, 주목할 만한 주장은 ‘시빌리언파워(Civilian Power)’ 로서 보는 시각이다.⁶⁶ 이 개념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아직 일치된 합의를 보고 있지는 않지만, 군사력에 기반한 기존의 냉전 모델(military power)을 넘어 새로운 대외정책 행위자의 모델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것은 분명하다. 하르니쉬와 마울(Harnisch & Maull)에 따르면 국제체제에서 ‘시빌리언파워’ 가 가진 역할의 이상적인 형태는 국가 간, 또는 국가와 사회 간 상호의존을 하되 대외정책의 정책 결정자들이 일방적인 수단에 의해 권력을 지나치게 많이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시빌리언파워’ 모델은 국

63 1993년에 발효된 Maastricht 조약에서 처음으로 ‘European Union’ 이라는 용어를 채택함으로써 이것의 정체성이 무엇이나하는 논의에 불이 붙었다. 현실주의 정치학을 원용한 연구자들은 국제체제의 단위인 ‘의제화된 국가’ 의 관점에서 개념화를 시도하였고(Hill and Wallace [1996]; Bretherton and Vogler [2006]), ‘경제공동체’ 라는 기능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자들은 ‘제도’ 로서 접근하였다(Nuttall [1992; 1997], Moravcsik [1998], Hix [2005]).

64 Ben Rosamond, “New Theories of European Integration,” in Michelle Cini (ed.), *European Union Poli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pp. 109-127.

65 Brian White, *Understanding European Foreign Policy* (New York: Palgrave, 2001).

66 이안 매너(Ian Manners)는 유럽연합이 집합적 정체성을 ‘노마티브 파워(Normative Power)’ 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시빌리언 파워와 노마티브 파워의 구분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공동된 견해다. 왜냐하면 유럽연합의 관념과 역할이 국제사회에서 드러나는 데 양 개념이 근거와 이념적 지향성에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Manners (2002); Sjursen (2004); Teló (2006) 참조.

제 관계의 행위자로서의 국가는 “군사력이 아닌 민간의 힘에 의존하며 정당성에 기반한 국제 규범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자”로 정의될 수 있다. ‘시빌리언파워’ 모델은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국내 정치에서 발생하는 규범적 가치와 강력히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기반한 시민적 권리, 비군사적 분쟁해결 방법, 그리고 다자주의라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⁶⁷

‘시빌리언파워’로서 유럽연합은 이미 경제 거인을 넘어 국제 관계 속에서 시민적, 민주적 원리를 전파하며, 국제문제를 공동으로 책임지면서 정책에 참여하는 계약 당사자들의 구조로 현존하는 실체로 복원된다.⁶⁸ 텔로(Teló)는 “유럽연합이 세계 질서 속에서 발휘하고 있는 시민적, 다자주의적 힘은 논쟁의 여지없이 분명한 것이며 ‘모호한 영향력’을 이미 넘어서 있다”고 주장한다.⁶⁹ 그는 현존하는 유럽의 미래는 “다자주의의 실천”이라고 전제하고, 국제정치에서 논의되는 “신제도주의와 구성주의가 특히 유럽 유럽적 다자주의에 매우 접근되어 있으며 이것은 유럽 내의 내적 아이디어가 ‘인식론적 공동체(epistemic community)’의 수립과 통합을 지향하는 네트워크의 속에서 수많은 영향을 받은 가운데 가능했다”고 본다.⁷⁰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가 경험적으로 느끼게 되는 ‘시빌리언파워’ 같은 새로운 정체성 개념은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드러나는 다자주의에 기반한 활동 안에서 보다 뚜렷하게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민주주의와 유럽의 사회적 모델 전파, 인권 존중, 근린정책을 통해 드러난 경제 및 정치에 대한 영향력, 세계적 수준에서 드러난 경제적 힘과 소프트웨어, 다자주의, 신지역주의의 전파자로서 지역협력의 확산, 다층적 외교관계에 기반한 다면적 외교, 평화유지 활동 등이 ‘시빌리언파워’로서의 국제사회에서 드러난 유럽의 모습이다.⁷¹ 더 나아가 대외적 행위자로 등장하는 유럽연합의 발전과

67 Sebastian Harnisch and Hanns W. Maull, “Introduction,” in *Germany as a Civilian Power: The Foreign Policy of the Berlin Republic* (Manchester and New Yor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1), pp. 3-4.

68 Teló (2001), p. 251.

69 Teló (2006), p. 51, p. 57.

70 Teló (2006), p. 47.

71 Teló (2006), pp. 50-58.

정은 사회경제적, 제도적 성취에 뿌리박은 채 내부 환경의 변화에 맞춰 대외적 환경을 변화시키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국제정치를 오로지 무정부적 세계 속의 단위들 간의 다툼으로 보는 시각으로는 설명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유럽은 슈퍼파워라기 보다는 오히려 소프트파워에 기반한 ‘책임감(responsibility)’의 결사체이기 때문에 현실주의가 정의하는 권력의 속성 및 생성과는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책임감은 장기적으로 유럽의 외교정책을 이끄는 핵심 개념이라고 본다.⁷² 트위스(Tewes)의 말을 빌어 요약하자면, “시빌리언파워적 접근은 민족국가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문제를 전담할 수 없게 된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국제적 거버넌스의 새로운 형태이며, 그 목적은 국제적 환경의 문명화”이자,⁷³ 주체의 내적 변화를 시민적 힘이라는 맥락에서 포착하려는 자기 해석의 시도이기도 하다.⁷⁴ 유럽의 지식인들이 보는 유럽연합은 결국 변화된 정치적 실체의 등장으로 주체를 재탐색하여 유도한 파생물이었다. 이 같은 실체가 국제 관계 속에서 작용하는 대외적 활동은 단지 국제 정치의 구조 속에서 인과 관계라는 틀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내적 힘의 총체가 작용하고 있기에 주체에 대한 탐구가 아울러야 이해가 가능하다.

⁷² Teló (2001), p. 260.

⁷³ Hening Tewes, *Germany, Civilian Power and the New Europe: Enlarging Nato and the European Union* (New York: Palgrave, 2002), p. 11.

⁷⁴ 한편, 행위자들의 이익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존하고 있으며 문화적 영향이 행위자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 하에, ‘시빌리언파워’ 개념이 구성주의 전통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Tewes [2002]). 보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구성주의적 비체계이론(constructivist non-systemic theories)’이 국가의 특수한 형태 및 그러한 국가가 충실히 따르는 가치관과 규범을 중시하고 있으며, 어느 특정한 대외정책의 패턴은 이러한 특성으로 환원될 수 있는 반면, ‘구성주의적 체계이론(constructivist systemic theories)’의 시각은 국제적인 수준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한 국가의 정체성을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자유주의를 다시 합리적 자유주의와 구성주의적 자유주의로 구분하고, 후자의 관점에서 국가의 이익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데 반해 전자는 객관적 물질요소에 의하여 유도된다고 본다면 ‘시빌리언파워’ 개념은 비로소 구성주의적 자유주의의 범주 안에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즉, ‘시빌리언파워’는 정책결정자들이 이익을 어떻게 개념화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규범과 가치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구성주의의 관점을, 정부, 국가, 국제기구 그리고 사회의 관계 속에서 대외정책이 설명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의 관점을 모두 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Tewes (2002), pp. 16–20 참조.

IV. 국제정치학에서 해석학적 접근

1. 해석의 기초로서 현상학: 하이데거의 사유

근대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주체에 대한 관심은 국제정치학이 기존에 접근했던 과학주의, 구조주의, 실증주의가 답하지 못했던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준다. 기능적으로 분화된 단위로의 환원이 아닌 행위자 주체의 본질에 대한 물음, 경험보다는 철학적 완결성, 체계의 타당성, 일원론적 세계관이 아닌 다원론적 인식론이 주는 다양한 이해 등이 그러한 길로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냉전 시기 정치적 불안 속에서 등장한 동유럽의 자아라는 주체, 책임과 윤리 의식을 지닌 반성적 주체, 억압과 규제를 탈피하고자 하는 세계 연방 속의 주체는 비단 인간에 대한 확신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연합처럼 담지 능력의 변화가 도래한 세계 속의 정치적 행위자에게도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학은 여전히 이론화를 향한 성급한 결론과 법칙화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이유는 국제정치학이 '의미' 탐구의 공통적 체계를 과학 또는 실증적으로 이끌어 내려는 시도를 잠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과학적 이론화에 대한 유혹은 주체에 대한 물음을 망각한 채 과학을 인식론의 오만한 기반으로 삼으려는 생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하이데거(Heidegger)가 제시한 해석학적 현상학은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주체에 대한 관심, 더 나아가서 해석적 접근의 존재론적 기반을 반성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지평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⁷⁵ 사실, 본질에 대한 탐구

75 인간의 '주체성(주관을 가진자)' 과 관련하여 “개와 같은 동물은 주관이 없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즉, “인간 이외의 존재들이 인간과 더불어 모두 '주체성' 을 갖는 대상이라면 해석학적으로 탐구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해 하이데거 식으로 답하자면, 개는 '존재' 로서 또는 '존재자' 로 이해될 수는 있지만, 개는 '물어지는 것(존재)' 일뿐 그 자체가 선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스스로 존재 물음을 할 수는 없다. 하이데거는 '묻는 자' 로서 인간을 다른 존재자와 구별하기 위해 특정한 언어를 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현존재(Dasein)' 이다. 따라서 개는 '현존재' 가 될 수 없다. 하이데거는 무생물과 동식물은 '비현존재적 존재자' 라고 일컫고 비현존재적 존재자는 자기 존재를 문제 삼지 못한다고 보았다.

가 철학적 사유에 기반하느냐, 과학적 사유에 기반하느냐의 문제는 국제정치학의 경우 '이해'에 중점을 둘 것이냐, '설명'에 중점을 둘 것이냐에 대한 질문으로 변형되어 논의되기도 한다. 또 때로는 양자를 절충하는 방법이 제기되기도 하지만,⁷⁶ 본질적으로 설명은 이해에 바탕을 두어야 하므로 양자 간의 절충은 큰 의미가 없다. 그 이유는, '설명이론'이 주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과학적 앎과는 달리 이해에 대한 기반은 엄연한 철학적 앎으로 본다면 이분법적 사고가 가능하지만,⁷⁷ 그 보다는 차라리 철학적 앎을 기반으로 과학적 앎으로 외연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명이 이해에 바탕을 두어야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면, 철학적 앎이 전유될 때 과학적 앎에 대한 순차적 이행이 가능하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양자간 이분법이나 절충이 아니라 끊임없는 사유를 통해 이해하여 설명하는 길을 여는 것이다.⁷⁸

하이데거에 따르면, 주체는 존재와 대상으로 분리 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어떤 대상을 구성하는 작용 속에서 존재하고 있기에 현존재(Dasein)는 세계 내 존재(being-in-the world)가 된다. 이때 현존재는 자기 주변을 둘러싼 세계뿐 아니라 자아를 의식하는 존재이다.⁷⁹ 이는 연역이나 귀납의 논리로 밝혀질 수 없는 진리라는 점에서 원초적 체험이며 과학과는 구분된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한 존재에 대한 이해는 고정된 이해가 아니라 우리의 체험 속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이해이다. 세계는 모든 존재자들의 전체가 아니라 그 속에 현존재가 이미 처해 있는 전체이며 세계와 자아와 분리되지 않은 채 선행한다. 즉, 하이데거에게 세계는 모든 객관성이나 모든 개념화에 선행한다.⁸⁰ 그는 존재의 현사실성(facticity)이 인간의 의식이나 인식에 비해 훨씬 근원적이라고 보았으며 따라서 '현존재의 해석'은 중요한 과제였

76 민병원 (2012).

77 후설이 현상학에 끼친 공로가 큼에도 불구하고 해석학을 예비하는 현상학적 접근에서는 그가 철학적 앎이 아닌 과학적 앎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그의 시각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78 박이문은 철학적 앎과 과학적 앎이 세계관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것으로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앎이라는 측면의 이원론적 분리는 좀 더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박이문, 『현상학과 분석철학』 (서울:知와 사랑, 2007), pp. 73-77 참조.

79 마르틴 하이데거, 이기상 역, 『존재와 시간』 (서울: 까치, 2012), pp. 80-89.

80 리차드 팔머, 이한우 역,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문예출판사, 2012), pp. 218-219.

다. 이때 현존재가 처해 있는 현상(Phenomenon)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현상이란 고대 그리스적인 표현을 빌자면 ‘자신을 그 자체에서 내보여주는 것’이며 사물에 인간의 범주를 부과하지 않은 이는 그대로의 드러남을 의미한다.⁸¹ 따라서 “현상학은 진정한 이해의 본질이 바로 사상 자체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힘에 의해 인도되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자 “현상에 속해 있는 접근 방법을 통하여 현상에 의해 인도되는 수단”⁸²인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존재(주체)는 대상(객체)가 아니므로 존재 이해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현상이라는 맥락 속에서 경험되고 축적된 역사적 이해를 통해 가능하다. 따라서 존재의 이해는 해석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니체 식으로 말하자면 언어 속에 은폐된 인간의 열망은 밝혀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이데거의 해석학적 현상학 역시 은폐된 존재를 드러내 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현상학의 방법적인 의미는 해석’이며 ‘현존재의 현상학은 해석학’이 되어야 한다.⁸³ 그리고 현존재의 해석학은 실존의 실존성에 대한 이해이며 이는 주체에 대한 해석을 의미하게 된다.⁸⁴

현상학적 접근이 필요한 것은 ‘주체’로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그리고 해석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주체로 다가선 우리는 이제 앞 자체 곧 주체 ‘어로’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이해는 단 한번에 그리고 한꺼번에 이를 수 없다. 따라서 해석학이 필요하게 된다. 리코르 식으로 말하자면, 하이데거식의 ‘이해의 존재론’으로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문제의 전환을 통해 거기에 도달”하거나 아니면 ‘언어학과 의미론’으로 주체에 대한 이해로 다가서야 하는데 우리가 택하는 길은 해석으로의 길인 것이다.⁸⁵ 이 같은 해석은 구조가 아닌 주체의 문제이며, 실증이 아닌 사유 길에 의해 가능하며, 과학 이전의 철학에 의해 답해져야 한다.

81 마르틴 하이데거 (2012), p. 49.

82 리차드 팔머 (2012), p. 123.

83 마르틴 하이데거 (2012), p. 37.

84 Paul Ricoeur, *Le Conflit des Interprétation* (Paris: Seuil, 1969), p. 10. Ricoeur는 하이데거가 해석을 존재론의 입장에서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이전의 슐레이마허나 딜타이가 전개하였던 인식론적, 객관적 해석학과는 구분해야 한다고 보았다.

85 바로 여기서 해석학적 순환 개념이 등장한다. 리코르는 존재론에 대한 접근이 방법론의 부재로 불

2. 국제정치학에서 해석(Interpretation)으로의 길: 단위가 아닌 주체에 대한 물음

수차례 지적했듯이 그 동안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제정치학계에서는 국제정치학의 과학주의로의 경도, 실증주의 과신 등에 대하여 적지 않게 의문을 제기해왔다.⁸⁶ 이들은 주로 국제정치학의 이론화 시도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자연과학을 원용한 ‘법칙화’나 국가의 행위를 합리적 행위자로 전제하는 ‘합리적 선택론’ 등에는 반발하였다. 또한 국제정치 현상이 연구자의 능력으로 취합 가능한 몇 가지의 독립 변수들로는 현상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종속변수들을 설명해 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스미스(Smith)는 “이론이라는 것은 단지 설명하거나 예측하는 것이 아니며 인간의 행동이나 개입으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설명력(explanatory possibilities)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윤리적 실천적 지평까지도 포함하여 정의 되어야한다”고 보았다.⁸⁷ 객관화된 데이터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속성과 의미에 대한 사유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제정치 행위자들의 개별성과 조화를 구성적으로 보고자 하는 인식론의 필요성이 차츰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국제정치학에서도 해석이론(interpretive theory)으로 불리는 접근법들은 실증주의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규명하기 위하여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다.⁸⁸

가능하므로 해석학이 등장한다고 본다. 이때 리피르가 채택하는 해석의 주된 대상은 text이며, 해석은 해석자와 해석되는 text간의 순환을 통해 이해와 존재가 완벽하게 뒤바뀌게 된다.

⁸⁶ Albert Hirschman, “The Search for Paradigms as a Hindrance to Understanding,” *World Politics* 22-3 (1970), pp. 329-343; Ben Tonra and Thomas Christiansen, “The study of EU foreign policy: betwee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European studies,” in Ben Tonra and Thomas Christiansen (eds.), *Rethinking European foreign policy*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4); Teló (2009); 민병원 (2012).

⁸⁷ Steve Smith, “Positivism and Beyond,” in Steve Smith, Ken Booth, and M. Zalewski (eds.), *International Theory: Positivism and Beyo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⁸⁸ R. A. W. Rodes and Mark Bevir, “Interpretive Theory,” eScholarship (2002); Mark Bevir (ed.), *Interpretive Political Science* (London & New York: Sage, 2010); Ronald Bleiker and Mark Chou, “Nietzsche’s Style: On Language, Knowledge and Power in

해석으로의 길은 연역적 체계를 고수하는 일의성(一義性)을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대상에 대하여 오직 한 가지 사물만을 지시하고 이 사물을 다른 사물로부터 정확하게 구별해 주는 개념이나 판단, 추론을 일의적(univocal)이라고 한다면, 논리적 진리는 사고의 형식이 일의적일 때만 도달할 수 있다. 즉, 연역적 체계는 사용된 개념이 모두 일의적일 때만 타당하다.⁸⁹ 과학주의가 가진 공통적 기저는 그들이 일의적 사고 체계로 완성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주체’ 중심의 국제정치학에서는 행위자의 존재물음을 단위의 기능적 작용이 아닌 은폐되었던 존재가 드러나는 현상으로 본다면, “그것은 진리도 거짓도 아니며 차라리 그러한 현상은 이의적(equivocal)인 것”으로 볼 때 이해가 가능하다.⁹⁰ 해석으로의 길은 지식을 얻기 위한 신념과 이성의 조합을 통해 문헌에 관여된 진리 탐구이며 직관력과 합리주의를 넘어서는 믿음을 말한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주관적이라기보다는 객관적이어야 하며 이는 판단을 통하여 조정된다. 해석학적 접근은 현상학이 전제하고 있는 경험 이전의 선험적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언어의 의미(meanings)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적인 목표가 된다.⁹¹ 또한 해석학적 접근은 국제정치학이 필연적으로 국제 관계라는 지식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을 ‘대화와 논쟁의 드라마’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⁹²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체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대화, 문답 등의 담론에 초점을 맞추어 전유하는 것이 필요하다.⁹³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자가 취하는 행위와 제도의 형성,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형성해 나가는 방식이 의미하는 것이 무언인가에 대한 탐구에 관심을 집중하게

International Relations,” in Cerwyn Moore and Chris Farrands (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Philosophy: Interpretative Dialogues* (London: Routledge, 2010).

⁸⁹ 로베르트 하이스, 황문수 역, 『변증법이란 무엇인가』 (서울: 서문당, 1996), pp. 26-27.

⁹⁰ 로베르트 하이스 (1996), p. 29.

⁹¹ Rodes and Bevir (2002).

⁹² C. A. W. Manning, *The Nature of International Society* (London: Macmillan, 1962) 참조. 그는 국제사회는 국가들의 사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서로 해석하고 재해석하고 재형상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⁹³ Cerwyn Moore and Chris Farrands, “Introduction,” in Cerwyn Moore and Chris Farrands (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Philosophy*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10), pp. 1-7.

된다.⁹⁴ 다만 해석학적 탐구가 언어를 매개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연 언어가 아닌 예술작품, 습관, 사회조직, 그리고 무화적 표현 등에 이르기까지 ‘의미’가 응축된 다양한 것들은 모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어떤 의도를 전달하는 기호 또는 상징을 언어라는 개념으로 확대해 나갈 때” 인문학 및 사회과학에서 해석학의 의미는 중요성을 띄게 된다는 것이다.⁹⁵

한편, ‘의미’에 대한 접근법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적어도 정치학의 경우 인식론적으로는, “‘정치학에 대해 우리가 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how do we know what know about political sciences?)”에 대한 답변을 찾는 것이 그 핵심이 될 것이다.⁹⁶ 그리고 이에 대한 잠정적인 답변은 현상에 대한 적절한 ‘의미’를 발견해 내지 못하면 정치학에 대한 이해는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의미를 향한 단선적 접근보다는 순환의 과정 속에서 그 중간 지점에 있는 답을 찾아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접근 방식은 다분히 과학주의, 사회적 실증주의와는 대비된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해석학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본질적으로 ‘언어’이다. 일상생활에서 ‘언어’ - 입말이든 글말이든 - 는 대화의 매개체로 사용되지만, 그 형식과 상관없이 언어는 우리 주변의 세계를 설명하는 은유와 환유의 집합체이다.⁹⁷ 그러나 언어가 의미를 생성하는 과정은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실체와 현상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 전통에 의해 만들어지기 마련이며, 우리가 세상의 어떤 면에 대해 말할 때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사실이나 현상과는 관계없이 세상에 대해 품고 있는 우리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선택한 이미지만을 걸러내고 있는 것이다.⁹⁸ 언어가 이 같은 특징을 갖게 된 것은 니체의

94 해석학적 접근자들이 주로 경계하는 대상은 실증주의로 보다 세분화 하면, 행태주의 (behaviouralism), 제도주의(institutionalism), 합리적 선택 이론(rational choice) 등이며 이 같은 접근법은 과학만능주의(scientism)로 본다. Bevir (2010), pp. xxv-xxix.

95 박이문 (2007), p. 79.

96 Bevir (2010), p. xxii.

97 일상생활과 은유/환유의 관계는 M. 존슨 · 조지 레이코프, 노양진 외 역, 『삶으로서의 은유』 (서울: 박이정, 2006).

표현대로라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권력에의 의지, 승리에 대한 염원 그리고 타자를 종속시키려는 열망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생활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언어 속에 은폐되어 있는 주체의 속성을 찾아야 한다.⁹⁸

연구자들은 인간에게 허락된 협소한 ‘개념의 감옥’을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같은 의미에서 언어를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닌 세계를 이해하는 도구로 파악할 경우 국제정치학에 주는 함의는 남다르다. 정치적 인식(political perceptions)은 사건 자체에 뿌리를 두고 있다기보다는 사건 후에 등장할 정책적 대응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형성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경우가 많다. 단편적인 예가 9.11 이후 등장한 테러와의 전쟁(War on Terror)과 같은 용어이며, 7-80년대에 유행했던 ‘빨갱이’ 개념이 북한을 실질적 적으로 규정하는 도구로 쓰였을 뿐 아니라 한국 사회를 이념으로 분리시킨 것 등이 그 같은 예다. 이는 우리사회 전반이 이 사건의 원인, 발현, 결과 등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된다. 결국 언어, 지식, 권력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전문가들 또는 정책결정자들에게, 사태에 대해 공동의 이해(common sense)는 사건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결국 특수한 이슈 - 현실주의 시각에서 보자면 ‘안보’ - 에 대한 도덕적 권위를 부여하고¹⁰⁰ 그 위계적 질서를 외부로 전파하기 위한 도구로 원용된다.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의미가 형성, 유지되기 때문에 해석자는 현상을 성실하고 고결하게 다룰 도덕적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같은 태도는 해석적 순환을 통해 현상으로 재돌입하게 된다.¹⁰¹ 따라서 국제정치학은 주체에 대한 끝없는 해석이 필요하며 이런 순환구조를 통한 이해는 결코 끝을 향한 순차적인 과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되는 과정이다.

실증주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신념(beliefs)’ 과 같은 것은 변수화 시킬 수 없다는

98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직관에 기반한 인식→ 이미지 형성→ 단어 형성→ 단어의 패턴 형성→ 언어적 문화적 시스템 형성.

99 Bleiker and Chou (2010), pp. 8-10.

100 Bleiker and Chou (2010), p. 14.

101 Farrands (2010), pp. 33-45.

점, 인과 관계에 의지한 설명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 등에서 해석적 접근법의 모호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실재론적 입장에서 볼 때 해석학은 주체는 사라지고 오히려 해석의 구성물에 불과하다는 모순을 지적하기도 한다.¹⁰² 이 같은 비판은 여전히 사회과학 전반에서 유효하지만, 뒤집어 보면 기존의 지식사회가 자연과학처럼 국제정치학의 '법칙화'와 '과학적 이론화'만을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에 불과하다고 항변할 수 있다.¹⁰³ 보다 중요한 것은 앞 자체로 돌아가서 주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국제정치 전반으로 앎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V. 결론: 단위를 넘어 주체로, 이해를 넘어 통찰로

우리가 목격하는 국제정치의 세계는 무정부적 혼돈과 질서, 이익과 도덕,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의 힘의 편차와 균형이 공간과 시간의 엇갈림 속에서 모호하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결정론적 사고관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누구의 예측도 불허한다. 국제정치는 이제 설명은 물론이거니와 이해조차 쉽지 않다.

그 동안 국제정치학의 과학적 이론화의 중심에는 (신)현실주의적 접근이 있었다. 냉전의 구도 속에서 수 많은 성과를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가정한 세계관과 그들이 시도한 과학적 이론화의 작업은 많은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 그들은 국제정치의 행위자를 국가 중심으로 보되 이들을 '단위'로 환원시켜 그들 사이의 능력(capability)과 역량(competence)을 몰개성화 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양극성이 강력하게 드러난 위계화 된 체제에서는 주체는 기꺼이 단위로 환원되었다. 그러나 국제관계에서 몇 가지 임의적인 변수를 매개하여 구조라는 틀 속에 집어넣은 단위들 간의 활동은 (신)현실주의가 가정하고 있듯이 인과 관계의 총체로 맺어져 있는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물질적 변수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내적 흐름

¹⁰² 한스 크래머, 최신한 역, 『해석철학과 실재론』 (파주: 서광사, 2012).

¹⁰³ Bevir (2010), p. xxiii.

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그 주인은 사회 속의 인간에게는 자아였고 국제무대 속의 주체에게는 정체성이었다.

주체는 어느새 복원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복원된 주체에 대한 물음은 인과성에 근거한 체계중심적인 실증주의적인 태도와는 구분된다. 주체에 대한 물음은 과학적인 접근과는 궤를 달리한다. 말하자면 현상이 스스로 드러내는 본질에 의존해야 하여 이를 위해서는 특별히 해석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제정치학에서는 실천으로 나타나는 행위와 언어를 통해 은폐된 주체의 열망을 해석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체의 본질에 대한 탐구가 보다 많이 요구된다. 주체는 때로는 정체성으로, 때로는 권력의 담지자로서 나타나며 끊임없이 내적 역량의 변화에 따라 운동한다. 이런 맥락에서 주체에 대한 탐구는 끊임없는 물음 속에서 가능하다. 물음은 이해의 시작이며 곧 설명으로 가는 길이 된다. 이해와 설명이 가능할 때 우리는 현상과 주체와 실재를 통찰하게 된다. 다만, 철학의 범주에서 언급하는 믿음과 신뢰가 국제정치학에서 주체의 본질을 이해하는 전제가 될 수 있을 것인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주체에 대한 이해는 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치지만 그 근거가 연구자 주관의 믿음이나 신뢰여서는 사회의 공감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증적 증거 이상의 보다 분명한 근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어려움은 국제정치학의 주체를 어떻게 범주화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신)현실주의의 식으로 말하자면 단위 수준의 문제이다. 주체는 어떤 경우에는 개인으로, 어떤 경우에는 국가로, 또 어떤 경우에는 체제적 수준으로 또는 지역적 단일체의 수준으로 등장한다. 이런 구분은 현실에서 어때야 하는가하는 애매성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준의 문제는 이미 (신)현실주의를 비롯한 국제정치 이론 전반이 함께 갖고 있는 어려움이다. 국제정치에서 파생되는 결과물은 어느 수준에서든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준의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물의 이면에서 은유되고 상징화 된 속성을 들추는 것이 보다 먼저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수준이 아니라 주체의 능력이 확대되고 심화되면서 내재되어 가는 힘의 속성이다.

앞의 과정으로 보았을 때 해석학의 첫 번째 도구는 언어다. 특히 각종 언어 속에

드러난 주체의 속성을 주어진 맥락 속에서 앞으로 전유하는 것이다. 국제정치학에서는 각종 언어가 전략과 규범이라는 용어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텍스트 속에서 목격된다. 그들을 전유해야 한다. 국제정치의 언어 속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다.

참고문헌

- 김상배.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모색: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세 가지 가정을 넘어서.” 『국제정치논총』 제48집 4호 (2008).
- 김학노. “국제정치(경제)학의 미국 의존성 문제.” 『국제정치논총』 제48집 1호 (2008).
- 로베르트 하이스. 황문수 역. 『변증법이란 무엇인가』 서문당, 1996.
- 리차드 팔머. 이한우 역.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2012.
- 마르틴 하이데거. 이기상 역. 『존재와 시간』 까치, 2012.
- 민병원. “국제정치이론과 한국: 비판적 성찰과 제안.” 『국제정치논총』 제46집 특별호 (2007).
- _____. “이해할 것인가, 설명할 것인가.” 『한국정치연구』 21권 3호 (2012).
- 박이문. 『현상학과 분석철학』 서울: 知와 사랑, 2007.
- 어니스트 네이글 · 제임스 뉴먼. 광강제 · 고중석 역. 『괴델의 증명』 서울: 승산, 2011.
- 요나톤 모세스 · 투르본 크누트센. 신욱희 · 이왕휘 · 이용욱 · 조동준 역. 『정치학 연구방법론』 서울: 을유문화사, 2011.
- 이남인. 『현상학과 해석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4.
- 전재성. “한스 모겐소(Hans Morgenthau)의 고전적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 『국제지역연구』 제8권 2호 (1999).
- _____. “한국 국제정치학의 향후 과제들.” 『국제정치논총』 제46집 특별호 (2007).
- _____. 『동아시아국제정치: 역사에서 이론으로』 서울: EAI, 2011.
- 전재성 · 박건영. “국제관계이론의 한국적 수용과 대안적 접근.” 『국제정치논총』 제42집 4호 (2002).
- 하용삼 · 김준수. “니체, 철학의 해체와 재구성.” 『대동철학』 48권 (2009).
- 한스 크래머. 최신한 역. 『해석철학과 실재론』 파주: 서광사, 2012.

- M. 존슨 · 조지 레이코프, 노양진 · 나익주 역. 『삶으로서의 은유』 서울: 박이정, 2006.
- Arendt, Hanna.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New York: Harcourt Brace, 1966.
- _____. *The Promise of Politics*. Jerome Kohn, ed. New York: Schocken, 2005.
- Bevir, Mark, ed. *Interpretive Political Science*, Vol. 1-4. London & New York: Sage, 2010.
- Bleiker, Roland and Mark Chou. "Nietzsche's Style: On Language, Knowledge and Pow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Cerwyn Moore and Chris Farrands, 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Philosophy: Interpretative Dialogues*. London: Routledge, 2010.
- Burchill, Scott. "Introduction." In Scott Burchill, Andrew Linklater, Richard Devetak, Jack Donnelly, Terry Nardin, Matthew Paterson, Christian Reus-Smit, and Jacqui True, eds.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2nd Edition. New York: Palgrave, 1996.
- Campbell, David. *Politics without principle*. Boulder: Lynne Rienner, 1993.
- Chiang, Alpha. *Fundamental Methods of Mathematical Economics*, 3rd Edition. New York: Mcgraw-Hill, 1984.
- Christiansen, Thomas, Erik Jorgensen, and Antje Wiener. "Introduction." In Thomas Christiansen, Erik Jorgensen, and Antje Wiener, eds. *The Social Construction of Europe*. London: SAGE, 2001.
- Den Boer, Andrea. "Emmanuel Levinas, ethics and rupturing the political." In Cerwyn Moore and Chris Farrands, 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Philosophy*.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10.
- Farrands, Chris. "Gadamer's enduring influen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Cerwyn Moore and Chris Farrands, 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Philosophy*.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10.
- Freedman, David, Robert Pisani, Roger Purves, and Ani Adhikari. *Statistics*, Second Edition. New York: W.W. Norton & Company, 1991.
- Harnisch, Sebastian and Hanns W. Maull. "Introduction." In Sebastian Harnisch and Hanns W. Maull. *Germany as a Civilian Power: The Foreign Policy of the Berlin Republic*. Manchester and New Yor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1.
- Herzog, Annabel. "Political Itineraries and Anarchic Cosmopolitanism in the Thought of Hanna Arendt." *Inquiry* 47-1 (2004).

- Hirschman, Albert O. "The Search for Paradigms as a Hindrance to Understanding." *World Politics* 22-3 (1970).
- Hix, Simon. *The Political System of the European Union*. London: Palgrave, 2005.
- Keohane, Robert O.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 _____. "Institutional Theory and the Realist Challenge After the Cold War." In David A. Baldwin, *Neorealism and Neoliberalism: The Contemporary Debat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 King, Gary, Robert O. Keohane, and Sidney Verba. *Designing Social Inqui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 Lakatos, Imre. *Proofs and Refutations: The Logic of Mathematical Discovery*. John Worrall and Elie Zahar, ed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 Levinas, Emmanuel. *In the Time of the Nations*. London: Athlone Press, 1994.
- Macmillan, John and Andrew Linklater. *Boundaries in Question: New directions in International Relations*. Unknown: Pinter Pub Ltd., 1995.
- Manners, Ian. "Normative power Europe: a contradiction in terms?"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40-2 (2002).
- Manning, C. A. W. *The Nature of International Society*. London: Macmillan, 1962.
- McCumber, John. *Metaphysics and Oppression: Heidegger's Challenge to Western Philosophy*. Unknow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9.
- Moore, Cerwyn. "Jan Patočka and global politics." In Cerwyn Moore and Chris Farrands, 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Philosophy*.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10.
- Moore, Cerwyn and Chris Farrands. "Introduction." In Cerwyn Moore and Chris Farrands, 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Philosophy*.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10.
- Morgenthau, Hans J. and Kenneth W. Thompson.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6th Edition. New York: AlfredAKnopf, 1985.
- Moravcsik, Andrew. "Preferences and Power in the European Community: A Liberal Intergovernmentalist Approach."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31-4 (1993).
- _____. "Taking Preferences Seriously: A Liber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 International Organisation* 51-4 (Autumn 1997).
- _____. *The Choice for Europe: Social Purpose and State Power from Messina to Maastricht*.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8.
- Nuttall, Simon. *European Political Co-operation*. Oxford: Clarendon Press, 1992.
- _____. "Two Decades of EPC Performance." In Elfriede Regelsberger, Philippe de Schoutheete de Tervarent, and Wolfgang Wessels, eds. *Foreign Policy of the European Union: From EPC to CFSP and Beyond*.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 1997.
- Odyseos, Louiza. "Deconstructing the modern subject." In Cerwyn Moore and Chris Farrands, 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Philosophy*.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10.
- Owens, Patricia. "Walking corpses: Arendt on the limits and possibilities of cosmopolitan politics." In Cerwyn Moore and Chris Farrands, 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Philosophy*.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10.
- Patočka, Jan. "The Obligation to Resist Injustice." In E. Kohák, ed. *Jan Patočka: Philosophy and Selected Writings*. Chicago, Illinoi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9.
- Popper, Karl R. *The Logic of Scientific Discovery*. Unknown: Hutchinson & Co, 1959,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reprinted in 2006.
- _____. *Conjecture and Refutations*. Routledge & Kegan Paul, 1963,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reprinted in 2006.
- Ricoeur, Paul. *Le Conflit des Interprétations*. Paris: Seuil, 1969.
- Risse-Kappen, Thomas. "Exploring the Nature of the Beast: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Comparative Policy Analysis Meet the European Union." Original manuscript version, 1996.
- Rodes, R. A. W. and Mark Bevir. "Interpretive Theory." eScholarship. 2002.
- Rosamond, Ben. "New Theories of European Integration." In Michelle Cini, ed. *European Union Poli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Shepsle, K. and Mark Bonchek. *Analyzing Politics*. London & New York: Norton, 1997.
- Sjursen, Helene. "Security and Defence." In Walter Carlsnaes, Helen Sjursen, and Brian White, eds. *Contemporary European Foreign Policy*. London: SAGE

- Publisher, 2004.
- Smith, Steve. "Positivism and Beyond." In Steve Smith, Ken Booth, and M. Zaleski, eds. *International Theory: Positivism and Beyo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Teló, Mario. "Reconsiderations: Three Scenarios." In Mario Teló, ed. *European Union and New Regionalism*. Aldershot: Ashgate, 2001.
- _____. *Europe: A Civilian Power? European Union, Global Governance, World Order*. New York: Palgrave, 2006.
- _____. *International Relations: A European Perspective*. Surrey: Ashgate, 2009.
- Tewes, Hening. *Germany, Civilian Power and the New Europe: Enlarging Nato and the European Union*. New York: Palgrave, 2002.
- Tonra, Ben and Thomas Christiansen. "The study of EU foreign policy: betwee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European studies." In Ben Tonra and Thomas Christiansen, eds. *Rethinking European foreign policy*.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4.
-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McGraw-Hill, 1979.
- _____. "International politics is not foreign policy." *Security Studies* 6-1 (Autumn 1996).
- Wendt, Alexander.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White, Brian. *Understanding European Foreign Policy*. New York: Palgrave, 2001.
- Wight, Martin. "Why is there No International Theory." *International Relations* 2 (April 1960).

Question of Subject in International Politics: An Essay for Interpretive Approach

DOH Jong Yoon | Seoul National University

Given International Politics based on (Neo)Realism has theorized itself in framework of scientific approach. So-called, 'Scientific theory' in social science has been developed on the ground of usually positivism, system-centric explanation and causal relationship. Those approaches, however, disregard international actor's capability and competence because it is reduced to simply a unit.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herefore, International Politics has reflected on its main framework including scientific approach. European intellectuals explored still the humane 'subject' itself rather than 'unit' in structural attribute of politics although the wave of totalitarianism and bi-polar system prevailed in Europe. Approach through 'subject' takes an advantage which captures inner qualities among international actors while systemic/structural theory is overshadowed by materialism. For instance, the EU's promotion in the context of capability and competence entailed the change of its identity as new subject, beyond the economic community. Identity's change is the point to be overlooked in system-centric explanation. Such as a question of 'subject' could be effective through the interpretive approach on the basis of Phenomenology. Interpretation reveals a desire under subject itself as well as the inner meaning of action. The revealing is possible by understanding language that is caught in real world and then to be appropriated knowledge.